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검증 자료 670건 제출 요구

진영승(공군대장) 제45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질의응답, 참고인 진술, 신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전환한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영상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국방부(합참 포함) 311건, 병무청 29건, 방위사업청 7건, 비서관 323건 등 총 670건이다. 후보자의 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영승(공군대장) 제45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이경원 기자

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2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 달라”면서 “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시연 기자

화생방방어연구소, OPCW 시료 분석 평가서 임상·환경 동시 인증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

엄격한 절차 정평...세계 15개 기관뿐
화학무기 검증 분야 국제적 신뢰 발판

우리 군이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세계적 공신력을 확보했다. 국제기구로부터 임상·환경 시료 분석 지정기관 자격을 획득하면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는 17일 “예하 화생방방어연구소가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분석 능력 평가에서 임상·환경 두 분야의 동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OPCW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다. 화학무기 사용 의심 지역의 사찰과 검증을 담당한다. OPCW는 세계 각국 화생방 관련 연구소의 분석 능력을 면밀히 따져 지정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화생방방어연구소처럼 임상과 환경 분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연구원이 시료 분석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야에서 모두 인증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15곳에 불과하다. 국가로 보면 12개국만 ‘이중 인증’을 받았다.

OPCW의 인증을 받으려면 숙련도 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한다. 이 시험은 OPCW가 제공한 시료를 15일 이내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해 성분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제적으로 엄격한 인증 절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화생방사는 “군의 화생방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 검증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김해령 기자

한미, 23~24일 KIDD 개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논의

한미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아울러 두 나라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한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출범한 고위급 회의체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김해령 기자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우리 해군 울곡 이이함(왼쪽)과 미 해군 커티스 윌버 구축함이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 ‘2025년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여해 기동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으로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